



91년 창립... 회원 1천여명

在 독립국가연합고려인과학기술연합회

내년에 「환경」주제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

독립국가연합(CIS)편

재독립국가연합 고려인과학기술연합회는 약 2년전에 창립되었다. 그동안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으나 사회적 환경이 폐쇄되어 있었고, 광범위한 회원분포와 한국과의 교류가 어떤 분야에서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임무를 못내고 있었는데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러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할 무렵인 1990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고려인과학기술자 12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우리들은 한국의 거의 모든 연구시설, 교육시설, 생산시설, 산업현장 등을 보았으며 그 발전상과 높은 수준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비로소 마치고 열린 세계로 눈을 뜬 것을 느꼈으며 조국에 대한 동경심과 존경심이 우리나라 우리도 함께 미래의 과학기술발전 창달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욕구가 용솟음쳤다.

그 이후 곧바로 협회조직에 착수하여 1991년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됐다. 이 창립총회에 당시 과총회장인 권이혁박사가 이끄는 특별사절단이 내방하여 많은 용기와 도움을 주었고 이

사절단에는 민관식 명예회장, 정조영 부회장, 이걸삼 사무차장 등이 함께 하였다. 우리협회는 이 특별사절단이 협회의 출발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미래의 과학기술 혁신과 한국과 독립국가연합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재독립국가연합 고려인과학기술자들에게 보여준 자부심과 관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협회구성 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세계한민족과학기술공동협회의 의장이었던 현 과학기술처장관 김시중씨가 보여준 관심과 현재 우리협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 등에 대해 회원을 대표하여 아울러 감사를 드린다.

재독립국가연합 고려인과학기술협회는 중앙협회와 각 국가별 도시별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각 전공분야별로 분과회를 조직하는 일이 진행중이며 이미 우크라이나지회의 경우 이 작업이 끝난 상태로 다른 지회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총 회원수는 1천여명이 넘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 걸쳐 연구기관, 학교, 생산현장 등 산업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 교수, 전문가 등이며 아직 회원등

록이 되지않은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을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회원수
러시아 (모스크바시 및 모스크바근교 회원이 200명)	300명
크라스나야르스크시	50명
에카테린부르크시	25명
상 페테르부르크시 (레닌그라드)	15명
카자흐스탄	300명
우즈베키스탄	300명
크위기스탄	50명
땃쥐기스탄	50명
우크라이나	50명

협회의 간부구성은 지역대표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다.

▲회장 : 박 게오르기 티토비츠 (러·한 합작회사 「고려」의 학문분과 대표, 현 서울 삼성의 고문역으로 서울거주, 모스크바시)

▲부회장 : 최 알렉세이 다닐로비츠(NPA 쯔벤뜨메테에칼호기야의 제 1 부회장, 현 회장직무대행, 모스크바

시)·박 이반 티모페예비츠(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수학기계연구소 부대표, 카자흐스탄 지회장, 알마타시)·염 비체슬라브 테렌치예비츠(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핵물리학연구소 연구실장, 우즈베키스탄지회장, 타슈켄트시)

▲이사 : 강 비체슬라브 막시마비츠(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토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알마타시)·효 아나톨리 알렉산드로비츠(강성금속 및 합금연구소 대표, 우즈베키스탄 지르치크시)·한인봉(계획설계연구소 부대표, 크위기스탄 지회장, 크위기스탄 비쉬케키시)·김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츠(보건성 중요전문가, 크위기스탄 비쉬케키시)·최 표트르 바실리에비츠(공업대학 연구소장, 두산베시)·파 이고리 니갈라예비츠(화학연구소 연구실장, 두산베시)·윤 게나디 니갈라예비츠(키예프 민간항공연구소 과장, 우크라이나 지회장, 키예프시)·김난노(제어연구소 과장, 키예프시)·김 아르카디 블라지미르비츠(수학기계연구소 대표교수, 예카테린부르크 지회장, 예카테린부르크시)·한 예브게니 바르스비츠(우랄 전자통신기계연구소 교수, 예카테린부르크시)·김 표트르 테멘치예비츠(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과 물리연구소 실험실장, 크라스나야르스크 지회장, 크라스나야르스크시)·강 세르게이 빅토르비츠(공업대학교수, 크라스나야르스크시)

▲고문 : 허 진(국제대학 학장, 모스크바시)·정 블라지미르 안드레예비츠(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 모스크바시)

협회가 창설되어 업무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으나 협회의 조직

적인 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일들이 매우 느리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구조의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협회의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지원과 금전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회원 각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기도 엄청나게 어렵게 된 현 시점에서 회원 스스로의 자금조성이나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또한 그들로부터 많은 시간의 할애와 헌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Fax는 현재 필수불가결의 통신수단으로 여타국에서는 가정에서조차 상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는 고급전문가의 월급이 30달러선인데 Fax의 값은 5백 달러 이상이니 구입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모스크바중앙협회는 사무실조차 없는 형편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로부터 쏟아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신속한 답변을 하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답신의 부재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하신 분들께 변명코자 한다.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통신시설, 사무실집기, 컴퓨터 등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다. 협회가 제대로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정상상근업무를 시작한다면 각종 정보의 수집, 교환 등 회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외국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등으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얼마전 회원인명록의 초판을 완성하여 관계기관에 보냈고, 이 인명록의 보충 및 수정작업도 정기적으로 실행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협회의 첫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주제는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협회의 첫 학술대회라는 점 때문에 비교적 준비하기 쉬운(연구추진중인) 주제를 선택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각 전공분야별로 학술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일 역시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문제로 어떻게 스폰서를 잡느냐는 문제가 미결로 남아있다. 한편 가능하다면 매년 1회씩 정기적 학술논문집을 발간하여 각 회원국 및 관련단체 희망단체 등에 송부해 학문적 교류를 시도할 예정이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연구 노력과 집필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에는 학문연구기금이 모든 분야에 걸쳐 텅텅 비어 있어 과거의 화려한 과학기술의 업적과는 반대로 수많은 훌륭한 연구주제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만약 한국의 관심단체나 회사들이 적극적인 기금조성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스크바에 설치되어있는 KIST분소가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우리협회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실제로 여러 유명 연구기관의 책임자들과 만나 논의한 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바 있다. 두나라가 합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서로의 발전을 위해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면 경제 및 기술발전에 더 없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부분에 한국 관련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崔 알렉세이 다닐로비츠 회장직무대행〉